



대림 제2주보

대림 제2주일, 인권 주일, 사회 교리 주간
2020. 12. 06. (나해) 제2244호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마르 1,3)



『광야의 세례자 요한』, 호세 레오나르도, 1635년경, LA카운티 미술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가난과 겸손



복자본당 주임 | 김태형 베드로 신부

오늘 대림 제2주일 복음은 두 가지를 드러내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자 요한의 직무와 인격에 대해,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의 설교에 대해서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설교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 메시지는 예언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 선포되었던 “사막에 길을 내어라. 우리의 하느님께서 오신다.”라는 메시지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되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세례자 요한의 설교는 ‘하느님의 오심’이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오심’을 통해 드러나는 그분은 요한 다음에 오시는 분이지만 요한보다 더욱 강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느님의 권능과 함께 오시는 분이기에 악을 쳐 이기는데 더욱 강한 힘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 하러 오시는 목자이시며, 부서지기 쉽고 결핍된 것들을 배려하고 보살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오시는 분을 백성들이 받아들이기 위해 세례자 요한은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너희는 주님의 길을 닦고 그분의 길을 고르게 하여라!”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을 회개의 삶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회개의 삶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덕목을 갖추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림 2주간을 보내는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통해 배우도록 복음은 요한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삶을 통해 배워야 하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본질적인 덕목은 가난과 겸손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모든 이는 이 두 가지 덕목 안에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가난의 덕은 주님을 받아들인데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탄생할 때 화려한 궁궐이나 도시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골의 작은 마을 마구간에서 가난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기에 가난은 20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구세주가 탄생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구세주를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는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부여할 수 있는 모든 부유함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지 못할 것입니다. 가난한 자만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의 덕목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데 더욱 필요한 덕목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오시는 분의 신발 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는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교만함을 통해서 교회로부터 멀어져 갔음을, 반대로 주님을 닮은 수많은 이들이 가난과 겸손의 덕을 갖춘 이들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림 시기는 그리스도를 닮는데 필요한 덕목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하는 내적인 발걸음을 걷는 데 시간과 공간을 할애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 노력들이 오시는 “주님의 길을 닦고 그 길을 고르게” 하는 것입니다. 부디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 이러한 노력을 통해 오시는 주님을 더욱 기쁘게 맞이하기를 기원합니다. **필문**

돌봄의 문화

교구 비서실장 | 송영민 아우구스티노 신부

몇 년 전 호주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잿더미로 변한 숲속에서 다친 코알라에게 물을 먹여주는 소방관의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코알라의 앞발을 잡고 물을 먹이는 소방관의 모습이 참 따뜻하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지켜주고 보살펴줄 때 사람은 아름답게 빛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내 가족인지 아닌지, 나와 같은 종인지 아닌지를 넘어 사랑과 돌봄을 펼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면, 오늘날 생태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의 불씨는 살아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의 위기 상황이 심각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하기보다는 보살핌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태도로 응답하느냐가 응답 자체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찬미받으소서」 회칙이 강조하는 ‘돌봄’이라는 주제에 눈길이 갑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아프고 소외된 사람에 대한 보살핌을 지구 공동체 전체로 확대해 “돌봄의 문화”를 만들어가자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공동의 집 지구에 함께 사는 존재들과 ‘따뜻한 관계’를 이루자는 뜻이겠지요.

이러한 돌봄의 문화는 “우리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진심 어린 애뜻한 관심”에서 비롯됩니다. 루카 복음이 전하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배울 수 있듯이, 우리가 마음의 눈을 돌려 가던 길을 멈추고 주의를 기울일 때, 지구 공동체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좀 더 깊이 바라

볼 때, 공동의 집을 위한 돌봄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향한 따뜻한 관심은 “무관심의 세계화”를 넘어 “서로를 돌보는 작은 몸짓”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돌봄의 문화는 이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현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생태 환경에 대한 좀 더 강한 의식이 생겨나고 있고, “쓰고 버리는 문화”에 맞서 지구 공동체를 위한 ‘즐거운 불편’이나 ‘자발적 소박함’을 실천하는 이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일상 속 생태적 몸짓들이 민들레 흩씨처럼 퍼져나가고 “돌봄의 문화가 온 세상에 스며들도록” 노력한다면,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은 꽃 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돌봄의 문화를 꿈꾸는 이들에게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며 ‘Laudato Si’와 함께 2년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황혼녘의 바닷가, 어떤 노인이 파도에 휩쓸려 해변으로 올라온 불가사리들을 한 마리씩 주워 바다로 던져 넣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이들이 의아해하자 노인은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금 썰물이 시작되어서 그대로 두면 모래밭 위의 이 불가사리들은 다 말라죽게 된단다.”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이 넓은 해변에 이렇게나 많은 불가사리들이 있는데, 그러다고 무엇이 달라지나요?” 그러자 노인은 허리를 굽혀 또 다른 불가사리를 주워들고는 말했습니다. “최소한 이 한 마리만큼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

교황 “어려운 순간에 맞는 대림시기는 위대한 희망입니다”

2020년 11월 25일 바티칸 뉴스 | 번역 이재협 신부

구원하는 진리 안의 희망, 어둠을 비추는 강한 빛, 마음을 변화시키는 여정. 프란치스코 교황은 11월 25일 수요일 일반 알현을 마치며 이 모든 것이 대림 시기가 지나는 의미라고 강조하고 이제 막 시작하려는 전례 시기의 중요성을 기억하기를 전 세계 교회 신자들에게 당부했다.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 위대한 희망과 세상에 하느님의 아들을 선물로 주신 기쁨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힘써시다.” 교황은 프랑스어권 신자들에게 이같이 당부하는 한편 이탈리아어권 신자들에게 인사하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지난 주일 우리가 기념한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세력에서 해방하셨고 당신 나라에 참여하게 하셨으며 구원의 진리의 확실한 증인이 될 것을 당부하셨음을 기억하게 하는 대축일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묵상하십시오

교황은 이어 독일어권 신자들에게 “한 해의 마지막 주간 전례인 그리스도왕 대축일의 독서와 기도는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예수님께로 우리 마음을 집중하게 한다.”라고 강조하며 “그리스도는 우리가 충만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만날 준비를 하도록 이미 지금 이 순간 가장 작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 안으로 오신다.”라고 강조했다.

교황은 영어권 신자들을 향해 새로운 전례력의 시작인 4주간의 대림 시기 동안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의 길을 비춰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황은 스페인어권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하며 (여러 말을 사용하는 다양한 지역의 신자들에게 보낸 훈화의) 영적 모자이크를 완성했다. “하느님 말씀의 빛 안에서 묵상하면서 대림 시기를 더욱 기도에 힘쓰는 시간으로 보내십시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춰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로라테 미사

이런 의미에서,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예형으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낳으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기억하고) 기리며, 동트기 전 새날의 시작을 기다리면서 촛불만 켜고 어둠 속에서 봉헌하는 미사인 로라테(Rorate) 미사가 있다. ‘로라테’는 ‘하늘아, 위에서 이슬을 내려라(Rorate coeli desuper)’라는 이사야서 45장 8절의 첫 구절에서 따온 말이다(편집주: 미사 입당송이 이 구절로 시작하기 때문에 로라테 미사라고 부른다). 교황은 다가올 대림 시기에 폴란드 교회 안에서 거행할 로라테 미사를 기억하고 폴란드어권 신자들을 향해 인사를 전하며 일반 알현 인사를 모두 마쳤다.



원경도 요한 (1774?~1801년)

‘사신’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던 원경도(元景道) 요한은 경기도 여주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는 스물세 살 되던 1797년에 사촌 이중배 마르티노와 함께 김건순 요사팻에게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다. 이후 요한은 온 가족을 입교시켰으며, 최창주 마르첼리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1800년의 부활 대축일에 요한은 마르티노와 함께 동료의 집에서 부활 삼중 기도를 바치고 성가를 부르면서 하루를 보내게 되었다. 바로 그때 천주교 신자들이 모임을 갖고 있다는 밀고를 받은 여주의 관장은 즉시 포졸들을 그곳으로 보내 신자들을 모두 체포하도록 하였다.

여주 관장은 그들 일행에게 형벌을 가하면서 배교를 강요하고, 신자들을 밀고하라고 독촉하였다. 이때 원경도 요한은 일행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천주교에서는 다른 사람을 밀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천주를 배반하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이후에도 그들은 6개월 이상이나 옥에 갇혀 있으면서 여러 차례 형벌을 받아야만 하였다. 당시 옥중에는 후에 체포된 요한의 장인 마르첼리노도 함께 있었다.

그동안 요한은 여러 차례의 형벌로 인해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가 기적적으로 낫곤 하였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늙은 여종이 옥으로 달려와 노모와 부인이 슬퍼하는 정상을 전하면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사촌 마르티노의 도움을 받아 흔들리려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

1800년 10월에 요한과 동료들은 경기 감영으로 이송되어 다시 형벌을 받아야만 하였다. 그리고 다음해 신유박해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자, 경기 감사는 옥에 갇혀 있는 신자들을 다시 끌어내 형벌을 가하면서 배교를 강요하였다. 그러나 요한은 이에 굴하지 않았으며, 동료들과 함께 온갖 유혹을 뿌리치고 서로 용기를 북돋워 나갔다.

감사는 마침내 그들로부터 최후 진술을 받고 사형을 선고한 뒤, 이를 조정에 보고하였다. 이때 감사가 내린 요한의 사형 선고문에는 “천주교에 깊이 빠져 교회의 지시대로 형에게 제사를 폐지하도록 권하였으니, 이는 인간의 도리를 모두 끊어 버린 행위이다.”라고 적혀 있었다.

그 후 조정에서는 ‘그들 모두를 고향으로 보내 처형함으로써 그곳 백성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요한은 동료들과 함께 여주로 압송되어 1801년 4월 25일(음력 3월 13일)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참수형을 받아 순교하였으니, 당시 그의 나이는 27세였다.

오늘의 전례

제 1 독 서	이사 40,1-5.9-11	제 2 독 서	2베드 3,8-14	복 음	마르 1,1-8.
화 답 송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굳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알렐루야.				
영 성 체 송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산골(散骨)에 관한 질의응답 ④

하느님께서서는 세상 어디에나 계신 분이신데, 유골을 세상에 뿌리는 것은 죽은 이를 하느님의 품에 다시 맡겨 드리는 행위가 아닌지요?

하느님께서서는 세상 어디에나 계시지만 세상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십니다. 죽은 이를 세상과 일치시키려는 범신론적 사고에 입각한 산골은 하느님의 존재도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그분께서 세상을 초월하여 계신다는 신앙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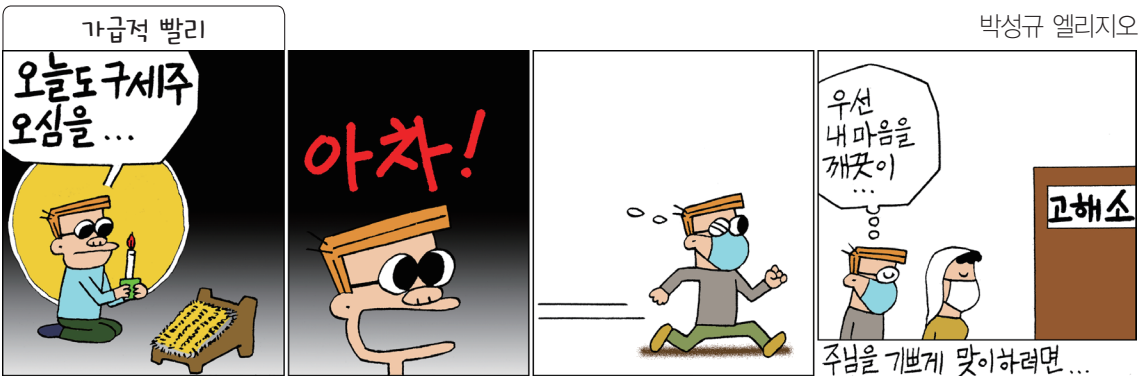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은 세상에 살면서도 그 세상을 넘어 하느님께서 마련하여 주시는 하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믿고 희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은 이의 유골을 성스럽게 또 소중하게 보관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일은 부활을 믿는 신앙인에게 합당한 것이지만, 유골을 소중히 모시지 않고 공중이나 산, 강, 바다 등에 뿌림으로써 다시 볼 수도 찾을 수도 없게 만들어 버리는 산골 행위는 하느님을 세상 안에만 계시는 분으로 축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멋있게 유골을 뿌리는 산골 행위는 사람들 사이에서 범신론적 표현으로 오해될 소지가 크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교구 가정복음화국에서는 성탄과 성가정 축일을 맞이하여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과 함께하는 가정성화 기도서**’를 제작하였습니다. 성가정 축일까지 《12.16(수)~27(일), 12일간》 가정성화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청: 11.29(일) ~ 12.8(화) 17:00 / **방법:** 각 본당별 신청(본당사무실 문의)

가격: 1,000원 /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053)250-3077, 3114



미사 안내

대구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2월 7일(월) 11:00 계산성당	1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12월 8일(화) 11:30 계산성당
포항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12월 7일(월) 11:00 죽도성당	김천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12월 9일(수) 10:00 평화성당
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12월 7일(월) 19:30 푸르실료교육관	3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12월 12일(토) 10:00 월성성당

성소 | 피정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성소 상담

대상: 20~30대 성소에 관심 있는 분

상담: 필요시 언제나 방문 가능

문의: (010)3375-4408

carmeldg@hanmail.net

주말 성령묵상회

일시: 12.12(토)~13(일) / 12.19(토)~20(일)

시간: (토) 13:00~18:00 / (일) 9:30~18:00

장소: 대구성령봉사회관(고령 월막)

차량: 설화명곡역 (토) 12:00, (일) 8:50

비용: 12만원 / 문의: (010)9045-0191

해님이 피정

일시: 12.30(수) 16:30~2021.1.1(금) 13:30

장소: 성베네딕도 왜관피정의집

비용: 24만원, 농협 301-0087-0776-61

베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문의: (054)971-0722 / (010)6791-0071

가르멜수도회 성소 모임

상담: 필요시 언제나 방문 가능

문의: (010)2140-7414

제주면형의집 피정

수도회 수사와 제주성지·평화·역사

순례, 미사,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일시: 12.11~13 / 1.8~10

1.23~25 / 1.29~31 / 2.5~7

신청: (02)773-1463 / (064)756-6009

예수마음기도 영성 수련 피정(권민자 수녀)

1박 2일: 12.12~12 / 1.9~10

3박 4일: 12.17~20 / 1.14~17

8박 9일: 12.26~1.3 / 1.31~2.8(신학생)

장소: 문산 예수마음피정의집

신청: (010)4906-5722

(031)953-6932

교육 | 모집 | 기타

2021년 제27차 해외선교사교육

일시: 2021.1.11(월)~2.5(금)

장소: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선교센터

대상: 해외선교를 준비하는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 양성담당자

문의: 해외선교사교육협의회, (02)953-0613

성기양로원(무료양로원) 어르신 모집

위치: 경북 칠곡군 동명면 한티 가는 길

내용: 매일미사와 공동기도, 산책로

대상: 65세 이상 일상생활 가능하신

기초생활수급자(남자 어르신도 가능)

문의: (054)974-8122 / (010)6485-7796

전인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전인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암 검진

및 일반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670-5959

『KBS2 TV 다큐멘터리 3일』 방영 안내

지난 11월 26일(목)부터 29일(일)까지 교구청 및 성모당 일대에서 촬영이 진행된 **KBS2 TV 다큐멘터리 3일**

프로그램이 오는 **12월 13일 주일 밤 11시 05분**에 방영됩니다. 교구민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p>일월매트총판 온 수 매트 한일 의료기 게르마늄매트 소금좌욕기 전자제품</p> <p>(주)매일프라자</p> <p>김홍은(오션) 010-9804-8008 유통단지 45 전자관 1층 239호</p>	<p>박익현 구심내과</p> <p>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초음파</p> <p>지하철2호선 경대병원역 3번출구 원장 박 의 현(안드레아) ☎053)252-1785</p>	<p>칠곡속내과 CHIL-GOK SOK INTERNAL MEDICINE</p> <p>위·대장내시경, 용종절제술 만성질환클리닉, 성인예방접종</p> <p>원장 이정수(오한) T. 053)327-0300</p> <p>대구 3호선 팔거역 4번 출구</p>	<p>기백한의원</p> <p>허리, 어깨, 손발저림</p> <p>교대역 3번 출구 옆 원장 박기범(유스티노) ☎ 053)471-3733</p>
<p>37년 전통 코리아알트만 결혼정보회사</p> <p>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p> <p>대표 박복순(오렐리아)</p> <p>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254 (2층) T. 743-4488 M. 010-3530-7467</p>	<p>경일신경과·내과의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뇌졸중(중풍)·치매 조기진단 • 두통, 어지럼증, 손발저림 • 영상의학 - MRI, CT, 초음파 <p>대표전화 053) 652-2525 내당역 2번출구(홈플러스 내당점 맞은편)</p>	<p>늘시원한 위대항병원 대장항문 세부 전문의 / 원장 노성균 아우구스티노</p> <p>치질/내시경(위·대장) 건강검진</p> <p>산격시장앞 ☎ 053-959-7175 010-9597-7175</p>	<p>컴퓨터 & 모바일 전자제품</p> <p>컴퓨터, 외장하드, 보조배터리 USB 제품, 공유기, 블루투스 스피커, 핸드폰 관련, 각종 케이블</p> <p>우성네트워크 진명환(아브라함) 053-604-3171 대구시 북구 유통단지 전자관 2층 71호</p>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장병보(베드로) 신부
1983년 12월 8일
- 안군목(마가리오) 신부
1948년 12월 8일

행사 | 모임

12월 예비신학교 방학미사

일시: 12.13(일) 14:00
1~5대리구: 남산동 대신학원
* 교구 모든 예비신학생을 위한 미사
(학부모님도 오실 수 있습니다.)

배고픈 아이들을 위한 7080 밥콘서트 9.5

일시: 12.19(토) / 1.23(토) 20:00
장소: 라이브클럽 락왕(대명동 계대네거리)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로 생중계합니다.
입장객은 40명으로 제한하며 좌석간
거리두기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

작은예수의집 가족 작품 전시회

장애인 그룹홈 작은예수의집
가족들의 작품 전시회에 초대합니다.
일시: 12.7(월)~13(일)
장소: 박물관 휴르(범어동)
문의: 652-6740

교육 | 모임

시편 성가 연수

일시: 12.13(일) 15:00
강사: 김정선 수녀

회비: 1만원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제대꽃꽂이 봉사자를 위한

아카데미 제13기생 모집
문의: 전례꽃꽂이연구회, (010)2780-4595

35회 글로벌 연애프 국내 영어캠프

일시: 2021.1.2(토)~30(토) 4주
대상: 초등 3학년~중등 3학년
주최: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원
문의: 국제교류팀, 593-1273

한국SOS어린이마을 국제협력담당 모집

일시: 11.23(월)~12.10(목)
분야: 국제협력담당
자격: 영어 능통자(통번역 업무수행)
문의: 법인사무국, 984-6928
<http://www.koreasos.or.kr>

채용 | 안내

교구청 경비 직원 채용

자격: 60세 ~ 65세 신체건강한 신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증명서
마감: 12.18(금) 16:00
제출: 교구청 관리과
문의: 250-3031

효성초등학교 정규교사 채용

원서접수: 12.14(월)~17(목)
채용 내용 및 인원 등은
효성초등학교 홈페이지 참조
<http://www.dg-hyoseong.es.kr>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박광빈(글니엘모)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대구가톨릭요양원 시설명칭 변경

변경일자: 2020.11.1~
당초 시설명: 대구가톨릭치매센터
변경 시설명: 대구가톨릭요양원
문의: 616-2141

갤러리 1981 대관 모집 안내

2021년 홍보 팸플렛 제작 전
대관 계약한 작가 팸플렛 홍보혜택
일정: 2021년 연중
장소: 교구청 내 가톨릭여성교육관
문의: 254-6115

백합식품 메주 판매

수녀들이 직접 만든 순수 우리의 것
국산콩 100% 메주를 판매합니다.
문의: 백합식품본사, 857-2037
대구판매소, 257-1771
서울판매소, (02)2202-8392

안동교구 문경 마원성지 폐기용 성물 접수

폐기할 성물과 성지후원 받습니다.
계좌: 농협 301-0197-7617-31
안동교구
주소: 문경읍 새재로 600 양업명상센터
문의: (010)9944-0145

제주도 · 추자도
국내 167 곳의 거룩한 땅
성지순례단 모집
★ 4명 이상 수시 출발 가능 ★
T. (053)253-3399
(주)성지여행 (조 협 레(유스티노) 홀 미 회(안젤라))

Seong Seo **SOK** Internal Medicine
성 서 속 내 과
건강보험공단검진, 암검진
위·대장내시경·유종절제술
한번에 편안하게!!
당뇨·고혈압 소화기·내시경 원장/전문의 김영섭(베드로)
성서메가타운 2층 ☎ **586-7572**
2호선 성서산단입지역 7번출구

대구대교구 월명성모의 집
실버타운 노인 복지주택
어르신들을 모십니다
성모님 사랑 안 - 인력한 노후생활을 ~
☎문의 (054)434-2898
김천시 남면 주천로 1448-16

U&I
유엔아이 결혼정보
053)795-2211 · 010-6572-2233
신매역 5번 출구 (사할 방향 500m)
제일병원 옆
김경림 (아네스)

윤영희 성명외과
서울대학교 병원 협력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원장 윤영현 바오로
수성구 어린이회관 맞은 편(3호선 어린이회관역)
T. 053)766-2454 / 2455

이 원 의 료 기
혈압계·혈당계·당뇨소모성재료
휠체어·주사기·보호대·뜸·부항기
주열기·체온계·욕창매트·환자용품
안마기·실버카·산소치료가·뽕질기
변상범(도미니코), 김인숙(아나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053)256-2512(대표),2513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보건복지부 인종의료기관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김 명 섭(그레고리오) 신부
TEL 053)615-4871

레이저 백내장 노인수술, 근시교정 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 호 성(아오스당)
의학박사 전문의 조 영 수(다미아노)
전문 의 이수윤(소피아), 홍정흠(대전안드레이)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자리